

광양시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순항

1048억 들여 구봉산 자락에 조성
을 1월 숲속야영장 건립 착공
소재 전문과학관·상상 놀이터 등
연내 실시설계 2026년까지 완료



광양시는 오는 2026년까지 구봉산 자락 중앙근린공원에 공립광양소재전문과학관과 상상놀이터, 숲속야영장, 스포츠클라이밍센터 등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를 조성한다. 테마파크 구상도. <광양시 제공>

광양시가 국내 최초 소재(素材) 전문과학관을 필두로 하는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를 오는 2026년까지 구봉산 자락에 조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는 구봉산 자락 중앙근린공원 안에 들어선다.

이곳에는 국내 최초 공립 소재 전문과학관과 상상놀이터, 숲속야영장, 스포츠클라이밍센터 등이 마련된다.

광양시는 지난 2020년까지 300억원을 투입해 편입부지 60만3000㎡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했다. 지난 2021년에는 사업비 1048억원에 대한 국비 229억원·도비 108억원·시비 711억원 등 재원을 확보했다.

지난해에는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에 돌입해 올해 1월 숲속야영장 건립을 착공하고, 지난달에는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들어갔다.

소재 전문과학관과 상상놀이터, 스포츠클라이밍센터 등도 올해 안으로 설계를 마무리해 2026년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립광양소재전문과학관은 지난 2021년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과학관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돼 출발했다.

소재 산업에 특화된 광양만권 산업단지의 특성을 살린 국내 최초 소재 분야 전문과학관을 내걸고 있다.

과학관 규모는 연면적 7010㎡으로, 광양시는 국·도비 260억원을 포함해 4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6년 개관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지난달 전시물 제작·설치사업 설계 중간보고·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내부구조 및 전시실, 전시 내용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등 밑그림을 마련했다. 오는 12월까지의 설계를 확정하고, 2024년 착공할 예정이다.

과학관과 함께 들어서는 상상놀이터와 숲속야영장, 스포츠클라이밍센터는 어린이·청소년 가족을 겨냥한 시설이다.

황길동 45-1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95억 원을 투자해 연면적 2820㎡ 규모 실내·실외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 착공, 2025년 완공이 목표다.

광양시는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어린이 자문단 상상놀이 워크숍을 여는 등 설계 전 단계부터 놀이터의 주인인 어린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왔다. 또 전문가 자문회를 통해 전시 내용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완공되는 숲속야영장에서는 구봉산의 별 헤는 밤을 보낼 수 있다.

지난 1월 첫 삽을 뜬 숲속야영장에는 사업비 28억원을 투입, 1만242㎡에 야영 갑판 28면, 숙박동 5동이 건립되고 있다. 이곳은 산책로와 편의시설

등도 갖출 예정이다.

스포츠클라이밍센터는 내년 1월 착공해 같은 해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총 50억원을 들여 리드빌, 스피드빌, 실내볼더링장 등 다양한 시설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30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지하 2층, 지상 1층 규모 통합 주차장과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이달 초 착공한 중앙근린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한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는 국내 최초 소재전문과학관을 중심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상상놀이터, 스포츠클라이밍센터, 숲속야영장 등 모험과 도전, 상상력을 자극하는 가족형 문화엔터테인먼트 공간이 될 것"이라며 "구상 중인 구봉산관광타운과 숙박시설, 골프장, 어린이차 뮤지엄 등이 들어서는 구봉산 관광단지, 구봉산 관광명소화사업의 일환인 체험형 조형물을 차질 없이 완성시켜 구봉산 일대를 가족 중심형 세계적 관광거점으로 부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고흥군 '제1회 드론 UAM 엑스포' 10월말 3일간 항공센터서 열린다

행사 준비 상황 보고회

고흥군이 오는 10월 국토교통부 UAM 비행 시연 개막행사에 맞춰 '제1회 드론 UAM 엑스포'를 개최한다.

고흥군은 대한민국 미래 항공교통 주도권을 선점하고 4차 산업혁명의 지역 신성장 동력인 우주항공 미래 시장 주도 및 드론 UAM 실증도시 입지를 확고히 구축하기 위한 대규모 엑스포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31일 고흥 드론센터에서 공영민 군수 주재로 부군수, 각 부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부회의를 병행한 제1회 고흥 드론 UAM 엑스포 행사 준비 상황 보고회를 했다.

행사 보고회에 앞서 현장 간부 회의에서는 고흥군의 드론 산업 상황과 경쟁력을 진단하고 새로운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설명회를 했다.

박기중 우주항공추진단장이 드론·UAM 산업생태계 인프라 시설 현황 및 추진 중인 전략사업과 향후 추진 전략사업들에 대한 PPT 설명에 나서 고흥의 미래항공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10월 말에 고흥 항공센터 일원에서 3일간 열리는 제1회 드론 UAM 엑스포 행사 준비

상황 보고회가 열렸다.

보고는 행사 주관사인 (사)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측에서 행사 추진 준비 상황 설명에 이어 질의 및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군은 UAM 엑스포 행사 외에도 전국 드론 축구대회, 세계 드론 낚시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준비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엑스포 준비 상황 보고회를 시작으로 지속해서 부서별 협조 추진 상황 점검과 의견 제시, 문제점 공유 등을 통해 빈틈없는 행사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엑스포 행사 기간 국토부 주관, UAM 비행 시연 개막행사가 열릴 예정이어서 타 지자체 행사에서는 볼 수 없는 실제 UAM 기체 비행 모습 시연과 UAM 공항 입출국 수속 및 VR 가상 체험 등 최첨단 체험 거리, 볼거리가 준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군수는 "드론·UAM 엑스포 행사는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의 입지를 공고히 구축하고 미래 항공교통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 지역 인프라 시설 강점을 최대한 살려 타 지자체 행사와 차별화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



지난 31일 고흥군 드론 UAM엑스포 행사 준비 상황 보고회에서 공영민 군수가 드론 UAM 엑스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곡성군 '찾아가는 일하잡 버스' 지역민 취업 도와 드립니다

곡성군이 연말까지 '먼저 찾아가는 곡성군 일하잡(JOB) 버스'를 운행하며 지역민의 취업을 돕는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8일에는 죽곡면사무소에서 '일하잡 버스'를 운행했다. 곡성 일하잡(JOB) 센터 직원들은 직접 마을회관 등을 찾아 주민 70여 명을 만나 이 가운데 58명의 신규 일자리를 연계했다.

행사에서는 삼강원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회복지자들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자와 생활지원사 모임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하잡 버스'는 취업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의 하나이다. 취업을 위한 일자리 상담, 면접 화장법, 면접 상담, 직업 심리 검사 등이 다양하게 진행된다. 참가자들에게는 구직 동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기념품도 준다.



'먼저 찾아가는 곡성군 일하잡 버스' 행사 참가자들이 지난 28일 죽곡면사무소에서 열린 행사에서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곡성군 제공>

곡성군은 지난해부터 지역 일자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일하잡 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먼저 찾아가는 곡성군 일하잡(JOB) 버스' 사업을 맡아 직접 구직자를 발굴하고 구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찾아가는 곡성군 일하잡 버스'는 오는 12월까지 매주 마지막 주 금요일에 11개 읍·면, 전남 과학대학교, 고등학교, 농공단지 등을 찾으며 지속해서 운영한다. 오는 25일에는 고달면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kwangju.co.kr

새얼굴

"평온한 일상 누릴 수 있는 치안활동에 최선"

김남희 순천경찰서장

"시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치안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순천경찰서장에 새로 부임한 김남희 서장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며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김 서장은 "자연과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생태 도시 순천에서 일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치안 활동을 펼



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순천경찰서 직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공감받는' 경찰 활동을 하자고 당부했다.

고흥 출신인 김 서장은 곡성경찰서장, 광주경찰청 112종합치안상황실장,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등을 지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